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	
		배 포 일 자	2022년 8월 15일(월) 총 3매		
담당 부서	농업기술센터	담 당 자	• 스마트농업담당 도학윤 ☎440-6931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중부지방 집중호우...인천시, 드론 활용 벼 병해충 확산 방지 총력

- 인천농업기술센터, 12일 드론 활용 벼 병해충 방제 실시 -
- 고령화 및 병해충 방제 인력 부족 농가에 도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최근 이어진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(금)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8월 상순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및 중부지방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유래 없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, 벼 등 농작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세심한 농업기술지도 및 병해충 방제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.

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재배농가의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손 부족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지원을 실시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
드론 활용 벼 병해충 방제는 농작물로부터 3~4m 상공에서 직접 농작물에 약제를 살포하는 방제방법으로 논 1ha 방제에 10분이면 가능해 관행 동력분무기 및 차량방제에 비해 효율이 월등히 뛰어나다.

또한 방제 작업자의 약제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논밭에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방제 방법이다.

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“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협업 방제를 통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경영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드론 방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 붙임 > 농업용 드론 및 드론활용 방제 사진



